

# 성기능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



박용재 / 성균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비뇨기과 교수

50대 초반의 약간 비만하고 피곤해 보이는 남자분이 발기에 이상을 상의하러 오셨다. 어렵게 꺼낸 말씀은 몇 개월 전부터 성적 욕구가 줄어들면서 서서히 발기력이 떨어져서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고, 설혹 성공하더라도 금새 시들어서 성생활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불평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셨다.

현재 혹은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고지혈증으로 운동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좀이 심하여 먹는 무좀약을 몇 달간 복용하였고, 위염이 있어서 위장약을 자주 복용하고 있으며, 술도 자주 하고 담배도 30여년간 피워왔단다. 몸에 다른 큰 이상은 못 느껴 왔기에 몇 년간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간단한 신체 측진을 하고 성기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환자분 스스로 체크하는 성기능에 관한 간단한 설문지를 다음 방문때 기록하여 오시도록 하고, 전신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호르몬검사를 하였다.

다음 방문에서 다른 검사들은 큰 이상이 없었으나, 뜻밖에도 혈당의 수치가 정상을 훨씬 넘는 것을 발견하였고, 간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도 비정상이었다. 치료방법을 상의하면서 우선 당뇨를 전문하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께 협진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환자분은 당뇨가 있다고 진단되었고, 당뇨, 혈압치료와 더불어 성기능 이상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

이와 같이 성기능 이상이 당뇨를 진단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 정도로 당뇨와 성기능 이상은 깊은 연관이 있다. 당뇨는 물론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등 소위 성인병으로 불리는 질환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들 모두가 성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인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고혈압약, 위장약, 정신과 치료약, 먹는 무좀약, 술, 담배는 발기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 발기부전은 흔한 질병이다

발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하면 성기에 혈액이 충만되는 것이다. 성적흥분을 일으키는 심리적, 육체적 자극을 받으면 평소보다 6~8배 많은 다량의 혈액이 성기로 유입되고, 그 결과 스폰지 같은 구조를 가진 성기 안에 있는 좌우 두개의 음경해면체가 확장되어 유입된 많은 양의 혈액이 음경해면체에 충만하게 된다. 이 결과 혈액의 퇴로인 정맥혈관을 압박 차단함으로써 음경해면체 내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최고의 강직도를 얻게 되는데 이를 발기라고 한다. 발기부전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10%는 발기부전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잠재적인 환자는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 당노인들의 성기능 장애

주위에서 보면 당뇨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게을리하면 일찍 발견하기 힘들고, 진단이 된 후에도 당장은 환자 본인이 느끼는 심각한 불편함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뇨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들인데, 합병증은 당뇨가 어느 정도 지속된 후에 나타나며, 그 중에서 비뇨기 계통의 합병증들은 성기능 이상, 배뇨장애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50% 이상에서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며 제 1형 당뇨병과 제 2형 당뇨병에 구분 없이 나타나고, 당뇨를 앓은 기간이 길수록 증가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같은 나이 또래에서 완전히 발기기능을 상실한 환자중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뇨가 없는 사람의 3배에 이른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10명 중 3명 정도가 당뇨와 연관이 있으며, 이는 당뇨에서 나타나는 합병증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주로 신경질환과 혈관질환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 성기능의 기틀을 유지시키는 남성호르몬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직접 발기가 일어나는 성기의 조직도 손상되며, 당뇨나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인 압박감이 성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상승작용을 한다. 대부분 당뇨병 환자는 이로 인하여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발기가 유지되지 않으나, 극치감과 성욕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또한 진행된 당뇨병 환자에선 흔히 사정을 해도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넘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기부전과 역행성 사정은 대부분 자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 성기능 이상의 예방과 치료는 혈당관리가 최우선

당뇨 합병증들은 당뇨의 심한 정도와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기능 이상을 포함한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 당뇨가 있다는 것이 진단된 즉시 적극적으로 정확히 당대사를 조절하는 것 만이 유일하며 또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당뇨와 합병된 성기능 이상의 진단도 일반적인 성기능 이상의 진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자세한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체검사, 몇 가지 혈액, 소변검사와 그 결과에 따라 환자와 상의하여 추가 검사를 하기도 한다.

성기능 이상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하지만, 각 원인에 따라 치료법에 차이가 없어지면서 원인을 찾기 위한 자세한 검사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 가지 원인보다는 몇 가지 원인으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원인 분류는 가치가 줄어들었다.

### 발기부전 치료할 수 있다!

필자는 성기능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종종 당뇨병 환자분들을 주로 치료하는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을 만나면, 발기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비뇨기과에 소개하여 협진할 것을 부탁드리곤 한다.

사실 적어도 반 이상의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발기이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분비내과 선생님들께서 의뢰하시는 성기능 이상 환자가 의외로 적은데, 까닭을 알아보니 당뇨병 환자분들이 성기능 이상에 대한 대화를 꺼리고 이상이 있어도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성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먹는 약 등 치료법도 다양해져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에서 치료효과에 만족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기능 이상이 있을 때 치료는 성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자의 심혈관 상태 등을 고려하여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인슐린 주사와 흡사한 주사요법, 진공발기기구 치료법, 요도 주사법 등 일회성 처치법과 음경보형물을 성기에 심는 반영구적인 수술법 등이 쓰이고 있다.

물론 치료는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몇 달 혹은 몇 년 치료한다고 병이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고, 발기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고혈압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치료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이 되기 전에는 먹는 약으로 성기능을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에서도 간편한 먹는 치료제가 몇 가지 사용되고 있고, 2~3가지 새로운 치료제가 곧 쓰이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과가 아주 뛰어난 치료제들이 새로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 >